충북근로자건강센터를 다녀오다

충북근로자건강센터 전경

박민수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산업보건센터
사내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제1기 사내기자단 임명식을 위해 청주미래누리터지식산업센터 내 위치한 충북근로자건강센터를 방문했다. 청주는 초행인데다 오송역에서 충북근로자건강센터가 있는 오창까지의 이동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임명식 시간보다 조금은 이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아침 일찍 출발을 하였다.

여유를 부리며 이동을 하였으나 충북근로자건강센터에 도착한 시간은 10시쯤이었다. 행사시작까지는 한 시간 정도 남았지만 또 다른 무언가를 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시간이다.

충북근로자건강센터 출입구

충북근로자건강센터 전면

< 검사 및 소요시간 안내 >

분 야	검사 및 상담 내용	소요시간
종합상담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상담 · 직업병 및 직업관련 질환 상담	10~20분
뇌심혈관 질환예방	·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당화혈색소 검사 ·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인자 검사 및 상담	10분 (상담시간 포함)
근골격계예방	· 체성분(인바디)검사 및 상담 · 기초체력 측정검사 · 근골격계 증상조사 및 질환 파악 · 체형분석 및 운동방법 안내	20분 (상담시간 포함)
심리	· 두뇌건강 & 스트레스 검사 · KOSS-SF (직무스트레스 검사) · CES-D (우울지수 검사) · MBTI, TCI (성격 및 기질 검사)	두뇌건강& 스트레스 검사(1분), MBTI, TCI검사 (30분) (상담시간 미포함)
작업환경	· 작업환경 (국소배기장치) 상담 · 청력 등 보호구 착용 및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상담	10분

- **종합상담 :** 10~20분
- **뇌심혈관질환예방 :** 10분
- **근골격계예방 :** 20분
- **심리 :** 30분
- **작업환경 :** 10분

임명식 장소에 들러 행사 관계자와 인사를 나누고 커피나 한잔 해볼까 하던 찰나, 이왕 온 김에 충북근로자건강센터에서 무료검진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았다.

행사까지는 시간이 남는데다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는 터라 고민할 것 없이 바로 충북근로자건강센터로 향했다. 입구에서 바라본 충북근로자건강센터는 무척이나 밝고 쾌적해 보였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니 안내데스크 뒤로 노동부,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낯익은 CI(Corporate Identity)가 보인다.

반갑다, 대한산업보건협회

간략한 인적사항을 기재 후 원하는 건강검진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본인이 할애할 수 있는 시간만큼 건강검진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이제 심혈관질환에 대해 어느 정도 예방활동을 해야하는 나이가 되었기에 주저없이 심혈관질환예방 건강검진을 선택하고는 안내받은 뇌심혈관 상담실 안으로 들어갔다.

검사 전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난 후 피검사를 시작하는데 센터에서도 자주 하는 검사인데 왜 떨리는지.

01, 02_기초건강측정실과 내부 모습
03_피검사를 위한 채혈
04_뇌심혈관상담실에서 상담 중인 간호사

떨렸던 마음과 달리 채혈은 아주 간단했다. 손가락 끝에 작은 바늘로 소량의 채혈을 했다. 단 한 번의 채혈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당수치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빠르고 편해서 좋다.

간이검사기에 혈액이 들어간 걸 본 후 5분이나 지났을까, 벌써 검사결과가 나왔다.
결과수치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조목조목 설명을 하는데, 친절하기로는 우리센터에서 가장 친절한 직원들에 버금가는 수준이었고 짧지도 또 너무 길지도 않은 적당한 상담시간으로 결과설명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는 길게는 1회/2년 짧게는 2~4회/1년의 주기로 근로자 일반 또는 일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예전에는 건강진단 실시만으로도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유지가 된다고 여겼으나 최근에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까지 조치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건강관리가 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질병 유소견자의 경우는 질환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요관찰자의 경우에는 질병으로 이환되지 않도록 하는데 근로자 건강진단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05_건강센터 내 근골격계질환 예방실
06, 07_다과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접수 대기실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법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어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사후관리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위해 노동부와 안전공단이 대한산업보건협회와 협업하여 만든 기관이 충북근로자건강센터다.

검진비용까지 전액 무료이니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 모두에게 비용 부담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사완료 후 확인해본 결과 개인의 검진 결과는 충북근로자건강센터 밖으로 유출되는 일조차 없다고 하니, 근로자 입장에서 마음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